

'겨울에 강한 차' 수입차 안전장치의 진화

겨울철 안전 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첨단 안전장치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겨울철의 경우 안전운전에 신경을 곤두세우더라도 대형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차업계는 '겨울에 강한 차'를 생산하는 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눈길이나 빙판길 등을 주행할 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겨냥한 수입차들의 첨단 안전장치를 소개한다.

눈길 내가 책임진다

'4륜구동' 시스템 업그레이드... 실내 보온장치도 첨단화

◇빙판길 대표적 안전장치 '4륜구동'의 진화=4륜구동은 겨울철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레저용차량인 RV차의 전유물로 여겨져왔지만 최근에는 승용차에도 널리 장착되고 있다.

아우디의 '4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는 겨울철에 단연 빛을 발한다. 주행상황에 따라 동력분배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눈길이나 폭설길 등에서 탁월한 주행 안전성을 보장한다.

또 전·후륜에 대한 동력 분배를 최대 25대75, 또는 75대25까지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4륜구동'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했다. 아우디가 자사의 차종인 'A6'을 내세워 스키 점프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차체 제어 및 미끄럼 방지 장치 '벡탈'은 인피니티는 새로 출시된 'G37' 등 전 차종에 '차량 다이내믹 컨트롤(VDC)'과 '트랙션 컨트롤(TRC)'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VDC는 운전 도중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해 여러 센서들이 보내오는 신호를 종합해 차체의 자세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안전장치다.

렉서스의 '차체 역학 통합제어 시스템(VDIM)'은 코너링 때 미끄러짐을 방지해준다. 'LS'와 'GS' 시리즈에 장착돼 있다.

VDIM은 상시 작동을 통해 브레이크와 엔진, 스티어링을 통합제어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험상황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다.

다양한 미끄럼 방지 기능들도 눈길을 끈다. 이 장치들은 겨울철의 미끄러운 오르막과 내리막, 곡선 도로 등에서도 차량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는 스위치만 누르면 가파른 경사면을 저속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내리막길 주행장치(HDC)'를 채택했다.

볼보 'XC70'에 달린 '안정성 및 접지력 제어 시스템(DSTC)'은 주행 방향과 스티어링의 움직임, 휠의 회전상태에 따라 엔진 출력과 휠에 전달되는 제동력을 조절해 미끄러짐을 예방한다.

푸조는 주행중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각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는 '전자식 주행안정 프로그램(ESP)'을 채택했다.

◇차량 실내 보온장치도 첨단화=히팅 시트는 겨울철에 운전자의 몸을 녹여주는 대표적인 실내 보온 장비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대부분 '히팅 시트'가 장착돼 있으며, 1~2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많다.

'히팅 스티어링휠'을 적용한 차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시린 손 때문에 장갑을 끼거나 손가락 끝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준다. 아우디 'A6'과 'A8', 캐딜락 '올뉴 CTS'와 'STS' 등이 이 기능을 채택한 모델이다.

혼다 '데전드'는 GPS 정보로 햇빛 방향을 판단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아이듀얼존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겨울철에 한 방향으로 차를 운전할 경우 햇빛이 덜 쬐는 방향에 따뜻한 바람을 더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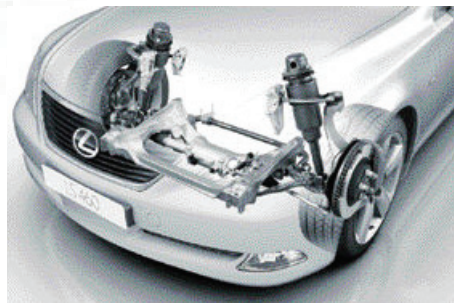
마이바흐는 '62' 모델에 '파노라마 루프'를 장착했다. 차량의 시동을 꺼도 태양열 전지를 통해 내부의 온도를 높여준다.

볼보는 모든 실내 기기의 작동 버튼이 큼직하게 만들어져 겨울철 운전이 적합한 차량으로 꼽힌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차를 몰 때도 시야를 전방에 둔 채 손의 감각만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우디 '콰트로' 시스템



렉서스 '차체 역학 통합제어' 시스템



아우디의 '4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는 겨울철에 단연 빛을 발한다.

제공한다. 폭스바겐의 '페이톤'에 채택된 '4모션'은 전후, 좌우는 물론 대각선으로도 구동력을 전달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벤츠의 '4메틱 시스템'은 도로 상태에 따라 네 바퀴, 전후 또는 좌우 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한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별 보청기) 1062) 227-9940 총장점 (교남공천인) 1062) 227-9970

리첸 리치엔 RITCHEEN

리첸 리치엔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267-7753

보양음료 속취해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062-267-7753 011-6612-8700